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elf-Objectification



충북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김 다 숨

2017년 2월

문학석사학위논문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elf-Objectification

지도교수 박상희

심리학과 심리학전공

김다솜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2월

본 논문을 김다솜의 문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심사위원장 황 순 택 ①

심사위원 유 성 은 ①

심사위원 박 상 희 ①

충북대학교대학원

2017년 2월

차 례

표 차례	i
그림 차례	i
국문 요약	ii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자기 성적 대상화	3
2.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관 연구들과 척도	3
3. 자기 성적 대상화의 실험 연구들과 척도	6
4. 척도들의 한계점	7
III. 연구 문제	9
1. 연구 목적	9
2. 연구 가설	12
IV. 연구 1	14
1. 연구 방법	14
2. 연구 결과	21
3. 논의	29
V. 연구 2	31
1. 연구 방법	31
2. 연구 결과	33
3. 논의	35
VI. 종합 논의	36
1. 연구 결과 요약	36

2. 한계점 및 추후연구	37
3. 결론	38
참고문헌	39
Abstract	43
부록	44
감사의 말	46

표 차례

표 1.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척도들의 요인과 측정내용	9
표 2.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의 문항들	15
표 3.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3
표 4. 2요인 구조모형과 1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25
표 5. 남녀 집단간 동질성 검증	26
표 6.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과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	28
표 7.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과 자기 성적 대상화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의 상관계수	29
표 8.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34

그림 차례

그림 1. 2요인 구조모형(a)과 1요인 구조모형(b)	25
--------------------------------------	----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고 실험 연구에서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 이론을 종합하여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 네 개의 요인을 가지는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를 구성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는 두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두 개의 요인을 가진 모형의 적합도가 하나의 요인을 가진 모형의 적합도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 중 제1요인은 내면화, 제2요인은 타인 의식으로 명명되었고, 이 두 요인은 모두 높은 수렴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보였으나 변별 타당도를 보이지 못했다. 연구 2에서는 이 척도를 실제 실험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실험조건과 통제조건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자기 성적 대상화, 성적 대상화,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

I. 서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성적인 요소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출연자의 몸매를 강조하는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한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¹⁾는 한 인간(특히 여성)의 몸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대상을 타인에게 이용되거나 즐거움을 주는 목적의 차원에서 평가하고(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 & Twenge, 1998) 대상의 성적인 요소를 인격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뜻한다(Bartky, 1990). 이때 대상화된 인간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 보여지고 평가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특성은 무시되고 도구와 같이 취급된다고 Bartky(1990),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말했다. 어떤 사람을 대상화한 사람은 대상화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능력과 인간성, 유능함, 따뜻함, 도덕성을 낮게 지각한다(Gray, Knobe, Sheskin, Bloom, & Barrett, 2011; Heflick, Goldenberg, Cooper, & Puvia, 2011). 즉 대상화된 사람을 상대적으로 비인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ervais, Bernard, Klein, & Allen, 2013). 이처럼 한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에 따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또는 몸매를 강조한 미디어를 접할 때 나타나는 대상화하는 시선(objectifying gaze)은 그 시선을 받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평가되는(성적)객체로 생각하게 되는 자기 성적 대상화(self-objectification)를 이끈다. 이렇게 자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낮게 지각하거나(Chen, Teng, & Zhang, 2013) 사회적 불안 및 성적 수치심(Calogero, 2004), 성기능 장애, 섭식장애, 우울증, 삶의 질 감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인식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누군가가 자신의 몸매를 쳐다볼 때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 ‘시선 공간’이라는 신조어가 인터넷에서 유행할 정도로 타인에게 외모를 응시당하거나 평가받는 경험은 흔한 일이 되었다. 2015년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일상에서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6%,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비율이 64%이다(한겨레, 2016). 이는 한국 사회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개인들에게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기준을 강요하며 외모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외모를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인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이론에서

1) objectification은 한국어로 객체화 또는 대상화라고 번역되고 있다. 한국 연구에서는 객체화보다 대상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대상화’라고 정한다.

말하는 여러 측면들을 반영하며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state)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에서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변화를 측정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요인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검증하였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실험 연구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조작이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특질(trait)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 성적 대상화

Costanzo(1992), Calogero, Tantleff-Dunn과 Thompson(2011), Fredrickson과 Roberts(1997), Fredrickson 등(1998)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기 성적 대상화는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 네 개의 서로 다른 요인들을 가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Costanzo(1992), Fredrickson과 Roberts(1997)에 따르면 성적 대상화가 만연한 환경에 사는 인간(특히 여성)은 자신을 외모를 바탕으로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도구로 생각한다. 또한 사회로부터 외적인 아름다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즉 ‘타인 의식(other-consciousness)’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외모로 평가될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을 도구로 취급하고 몸매로 평가하는 문화에서 사회화된 개인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자의 관점을 의식하고 내면화하게 되며 자신의 다른 가치는 무시한 채 외모에 사로잡히는 경향성을 나타낸다(Fredrickson et al., 1998). 다시 말해 자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개인은 타인의 관점과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internalization)’를 하게 되며 외모 이외에 자신을 나타내는 다른 요인들(예: 성격, 가치관)은 무시한 채 오로지 신체적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 ‘외모 지향성(appearance-orientation)’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Calogero 등(2011)에 따르면 타인의 관점과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의 몸이 그 기준과 부합하는지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비교한다. 즉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개인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이 사회의 외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교하는 ‘신체 감시(body-monitoring)’를 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한 사람이 이상적인 외모를 요구하는 사회의 압력 또는 타인의 성적인 언급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오직 외모로만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회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며 그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는지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신체적 외모에 집중하게 된다. 즉 자신을 주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남들에게 성적으로 평가당하는 객체(object)로 생각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하는 것이다.

2.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관 연구들과 척도

Fredrickson과 Roberts(1997)가 자기 성적 대상화 이론을 발표한 이후 많은 연구자

들이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을 상관 연구를 통해 알아냈다. 자기 성적 대상화와 신체 수치심, 섭식억제, 신경성 폭식증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 Noll과 Fredrickson(1998)은 자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은 신체 수치심과 섭식 장애를 예측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기 성적 대상화는 신체 수치심, 외모 불안과 관계가 있었고 신체 수치심과 외모 불안은 성기능(성관계 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으로 정의)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Steer & Tiggemann, 2008). Calogero와 Thompson(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은 신체 감시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신체 감시는 신체 수치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성(性)적 자존감, 성적 만족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Quinn, Chaudoir와 Kaleen(2011)은 상관 연구들을 바탕으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한 인간은 자신의 몸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비교하고 감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자신의 외모에 대해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섭식 장애나 우울, 성기능 장애를 겪게 된다.

한국에서도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아보는 설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2010)은 타인에게 대상화를 당하는 것이 내면화, 신체 감시, 신체 수치심, 섭식 장애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연예인의 외모가 강조된 음악 방송에 자주 노출된 여성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김시연, 서영석, 2011)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 연구에서는 음악 방송에의 노출로 인한 내면화가 수행 불안과 학습 몰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냈다. 백근영, 서영석(2011)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성적으로 대상화 당하는 것은 내면화와 신체 감시를 통해 일에 대한 몰입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은 신체 감시와 신체 수치심을 통해 성행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이처럼 한국에서 진행된 설문 연구들은 해외 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적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과 내면화와 신체 수치심, 신체 감시의 매개효과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자기 성적 대상화에 대한 상관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특질(trait)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에는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OBC)와 Noll과 Fredrickson이 1998년에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Fredrickson 등(1998)이 수정한 SOQ(Self-Objectification Questionnaire) 등이 있다.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는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 감시(surveillance)’와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수치심(body shame)’, 자신의 외모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 신념(appearance control beliefs)’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McKinley & Hyde, 1996). SOQ는 신체적 기능과 같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요소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체적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Fredrickson et al., 1998). 평가자는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 특성 다섯 개, 즉 몸무게(weight), 성적 매력(sex appeal), 신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veness), 단단하고 모양 잡힌 근육(firm/sculpted muscles), 치수(measurement)와 능력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인 신체 조정 능력(physical coordination), 건강(health), 힘(strength), 에너지 수준(energy level), 체력 수준(physical fitness level)에 대하여 본인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의 순위를 매기게 된다. SOQ의 자기 성적 대상화 점수는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특성의 합에서 기능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의 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는 사회의 기준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내면화(internalization)’와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물어보는 ‘인식(awareness)’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국내의 자기 성적 대상화 설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는 McKinley와 Hyde(1996)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한국에 맞게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S)이다. 이 척도는 원 척도와 동일하게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 ‘통제 신념’ 세 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Heinberg 등(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를 타당화한 척도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식’과 ‘내면화’를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김시연 등(2010)이 Kozee, Tylka, Augustus-Horvath와 Denchik(2007)가 개발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번안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외모로 평가를 받았던 경험을 묻는 ‘신체평가(body evaluation)’와 실제로 경험했던 성적 접근을 물어보는 ‘원치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접근(unwanted explicit sexual advances)’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을 많이 겪은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 또는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들이다. 또한 국내와 국외 모두 내면화와 자기감시를 자기 성적 대상화를 반영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보고 이 둘이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3. 자기 성적 대상화의 실험 연구들과 척도

많은 실험 연구들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밝혀냈다. Saguy, Quinn, Dovidio와 Pratto(2010)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여성 참가자들에게 이성 또는 동성과 오디오 혹은 카메라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2분 간 자기소개를 해야 했는데 오디오 조건에서는 녹음을 하고 카메라 조건에서는 영상을 찍도록 하였다. 카메라 조건은 다시 참가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며 찍는 조건과 자신의 몸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며 찍는 조건으로 나뉘었다. 연구 결과 이성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조건에서 특히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자기소개를 했을 때 참가자들은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했다. 즉 자기를 스스로 성적 대상화한 여성들은 사회 활동 및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덜 하려는 경향성을 보인 것이다. 이는 Calogero(2013)의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또한 Fredrickson 등(1998)은 한 조건의 여성 참가자들에게는 수영복을 입게 하고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브이넥 스웨터를 입도록 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풀게 했다. 연구 결과 수영복을 입은 조건의 참가자들은 다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수학 과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한 여성들은 인지적 수행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작으로 인해 변화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state)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 중 하나는 Kuhn과 McPartland(1954)가 자기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만든 질문인 TST(Twenty Statements Test)를 Fredrickson 등(1998)이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다. TST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으로 시작하는 20개의 서로 다른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이다. Fredrickson 등(1998)의 연구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조건의 참가자들은 수영복을 입고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면서 TST에 응답했다. 연구자는 “이 옷을 입는 것이 귀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할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귀하 자신을 나타내는 20개의 문장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제시했다. 즉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지시문으로 변형한 것이다. TST에서 참가자가 외모와 관련된 문장들을 많이 적는다면 이는 자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TST는 일일이 참가자의 응답을 코딩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실험 연구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조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는 조작점검 문항들(예: “I felt more like a body rather than a real person.”, “I felt as if my body and my identity were separate things.”, “I was viewed more as an object than a human being.”)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Chen et al., 2013; Saguy et al., 2010; Teng, Chen, Poon, & Zhang, 2015). 이

문항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느껴지는 정도를 물어본다는 점에서 다른 척도들보다 직접적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Calogero와 Jost(2011)가 Fredrickson 등(1998)의 SOQ척도를 ‘지금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열 가지 특성에 순위를 매기게 한 방법이 있다.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자기 성적 대상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조작을 통한 실험 연구보다는 자기 성적 대상화와 개인의 정신 건강, 섭식장애 또는 수행과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김시연 등, 2010; 김시연, 서영석, 2011; 백근영, 서영석, 2011; 장지원 등, 2012).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된, 실험 연구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에 기질적으로 자기를 성적 대상화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성(性)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는 자기 성적 대상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성적 대상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요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요인들에 의해서 외모 불안이나 신체 수치심 등 특질로 갖고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효과들과 유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또는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는 없는지 탐색해봐야 한다. 즉 다양한 상황의 조작을 통한 실험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은 자기 성적 대상화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변화를 유용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척도들의 한계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은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들, 특히 한국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은 특질을 측정하는 척도들이다. 예를 들면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외모 척도(김완석 등, 2007)의 경우 “체중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와 같이 개인의 지속적인 특질에 대해서 묻는다. 즉 개인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성적 대상화의 정도로 인한 심리적 결과들을 보기에는 적절하지만 조작에 의한 상태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이상선, 오경자, 2003)와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김시연 등, 2010) 역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예: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조작에 의한 상태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한계점은 기존 척도들은 선행 연구에서 정의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일부 측면들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하는 TST(Fredrickson et al., 1997)와 SOQ(Calogero & Jost, 2011) 모두 조작에 의해 자기 성적 대상화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개인이 얼마나 외모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만을 본다는 점에서 ‘타인 의식’, ‘내면화’, ‘신체 감시’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중요한 측면들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실험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조작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조작점검 문항들 역시 대상화된 경험만을 물어본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김완석 등, 2007)는 대상화의 여러 요인들 중 신체 감시만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이상선, 오경자, 2003)는 내면화만을 측정하므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 대상화 척도(김시연 등, 2010)는 대부분 성희롱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에게 모멸적인 성적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 성적 언급을 듣는 것이 자기 성적 대상화를 불러일으키는 선행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성적 대상화의 속성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면화를 요인으로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이상선, 오경자, 2003)는 여성을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예: “날씬한 여자들을 보여주는 뮤직 비디오는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또한 여성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척도를 타당화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연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Hebl, King과 Lin(2004), 김시연과 서영석(2012)의 연구에서 남성에게도 자기 성적 대상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 만큼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성적 대상화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Ⅲ. 연구문제

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성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험 연구에서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들(Calogero et al., 2011; Costanzo, 1992; Fredrickson & Roberts, 1997; Fredrickson et al, 1998)에서 언급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자기 성적 대상화는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의 네 가지 요인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이 네 가지 요인들을 반영하는 예비 척도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장훈장학회의 사회 조사연구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²⁾를 이용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각 문항들이 어떤 요인으로 묶이는지 확인하고 문항의 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다집단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와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척도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수렴, 변별 및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변인들과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상황의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참가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특질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특질을 반영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연구 1에서 쓰인 각 척도의 측정내용과 요인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척도들의 요인과 측정내용

측정도구
(1)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K-OBCS)
• McKinley와 Hyde(1996)의 척도를 김완석 등(2007)이 번안, 타당화
• 요인: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 신념
•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몸을 감시하는 정도와 자신의 몸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2) 인바이트는 약 8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 회사이다.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ATAQ)

-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것을 이상선, 오경자(2003)가 번안, 타당화
- 요인: 내면화, 인식
-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대해 그 기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와 동의하는 정도

(3) SOQ(Self-Objectification Questionnaire)

- Fredrickson 등(1998)이 사용한 것을 Calogero와 Jost(2011)가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 변형
- 신체적 기능보다 신체적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4) 자기의식 척도

-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의 척도를 이주일(1988)이 번역, 타당화
- 요인: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 사회 불안
- 자신에 대한 의식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사회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

(5) 신체평가소재 척도

- 김완석, 차주화(2006)
-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할 때 평가소재가 외부에 있는 정도

(6) MBSRQ(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 Cash(1990)의 척도를 강소영(2003)이 번안
- 요인: 외모의 평가, 외모의 지향성, 몸매 평가, 몸매에 대한 지향성, 건강의 평가, 건강의 지향성, 병의 지향성, 신체부위별 만족도, 비만의 과민성, 자기구분 몸무게
- 자신의 신체상에 대해 측정

(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 KOBES)

- 김완석(2007)
- 요인: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체기능 존중감
-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갖고 있는 존중감 정도

(8)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Social Physique Anxiety Scale; SPAS)

- Hart, Leary와 Rejeski(1989)의 척도를 최윤선(2008)이 번역
 - 자신의 체형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불안한 정도
-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얻기 위해서 사용된 척도들은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의 신체 감시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SOQ, 자기의식 척도의 공적 자기의식과 사적 자기의식, 신체평가소재 척도, MBSRQ의 외모의 지향성이다.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의 요인인 신체 감시성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감시한다는 점에서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와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이며 특히 신체 감시와는 강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통제신념의 경우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 객체화된 신체 의식을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요인인 내면화와 인식 역시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받아들이고 외모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와 상관이 있을 것이며 내면화와 강한 정적 상관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SOQ는 선행 연구에서 상태 자기 성적 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SOQ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체적 외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외모 지향성과 강한 정적 상관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의식 척도의 여러 요인들 중 공적 자기의식과 사적 자기의식만을 사용하였다. 사회 불안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묻는 문항들(예: “나는 집단 앞에서 이야기 할 때 불안감을 느낀다.”)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공적 자기의식 문항들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와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반면 사적 자기의식의 경우 자신의 외적인 상태가 아닌 내적인 상태에 관심을 두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예: “나는 대체로 나의 내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모든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신체평가소재 척도는 내가 나의 신체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 스스로의 관점에서 내 몸을 평가하는지 혹은 타인의 기준에서 내 몸을 평가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척도는 타인의 관점에서 나의 몸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을 보일 것이다. MBSRQ의 요인들 중 외모와 관련된 요인인 외모의 지향성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몸매에 대한 지향성 문항들은 몸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아닌 주로 신체적인 능력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예: “내가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외모의 지향성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의식한다는 점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외모 지향성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일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요인들과도 정적 상관관이 있을 것이다.

예측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의 신체 수치심과,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Steer와 Tiggemann(2008)의 연구에서 사회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은 외모 불안과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네 요인은 신체 수치심과 정적 상관관을 보이며 사회적 체형불안과는 부적 상관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McKinley와 Hyde(1996)의 연구에서 자기 감시가 신체 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으므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은 낮은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신체의 기능에 대한 존중감을 의미하는 체기능 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으며 두 조건 모두 이성의 동기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카오톡을 읽었다. 실험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몸매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며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은 자기 성적 대상화와 무관한 내용을 읽게 했다. 실험조건의 참가자들은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연구가설

가설 1.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문항들은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의 네 가지 요인 구조를 가질 것이다.

1-1.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문항들은 1요인 구조모형에 비해 4요인 구조모형에서 적합도가 더 높을 것이다.

1-2.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문항들은 여성과 남성에서 동일한 구조모형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은 자기 성적 대상화의 특질을 측정하는 척도의 변인들,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과 자기 성적 대상화 이론에 일치하는 상관관계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

2-1.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의 신체 감시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신체 감시와 신체 감시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2-2.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내면화, 인식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며 내면화와 가장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2-3.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SOQ점수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외모 지향성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2-4.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공적 자기의식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사적 자기의식과는 유의미

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5.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신체평가소재 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2-6.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MBSRQ척도의 요인인 외모의 지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외모 지향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은 자기 성적 대상화에 의한 심리적 결과들과 자기 성적 대상화 이론에 일치하는 상관관계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

3-1.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신체 수치심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3-2.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체기능 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3-3.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사회적 체형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는 통제조건에 비해 실험조건에서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IV. 연구 1

1. 연구 방법

(1) 참가자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인바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는 성인 400명(여성 200명)이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9.87세였다.

(2) 측정도구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심리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이 개발한 예비 척도이다. 척도는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를 요인으로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7점 Likert 척도로(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7점: '매우 동의한다') 응답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를 성적으로 대상화한 상태를 뜻한다. 문항은 타인 의식 15문항, 내면화 14문항, 외모 지향성 17문항, 신체 감시 15문항으로 총 61문항을 제작하였다. 45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16개의 문항은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김완석 등, 2007; McKinley & Hyde, 1996)의 '신체 감시성' 문항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이상선, 오경자, 2003; Heinberg et al., 1995)의 '내면화' 문항들, 신체평가소재 척도(김완석, 차주화, 2006) 문항들 중 '나는 지금'과 같이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들로 변형할 수 있는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존 척도의 문항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원척도의 저자들에게 허락을 구했다. 타인 의식은 자신이 외모로 평가될 것을 알고 있고 타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했다. 내면화의 문항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자의 관점과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자신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제작했다. 외모 지향성은 자신의 다른 가치는 무시하며 오로지 신체적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신체 감시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자신이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과 부합하는지 자신의 몸을 감시하고 비교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대학교 사회심리 연구실의 대학원생 세 명과 학부생 연구보조자 두 명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의 문항들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의 문항들

문항
타인 의식
1.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들은 내 겉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를 평가할 것 같다.
2.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남들에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나는 그들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생각할 것 같다. ³
4.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내 겉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¹
5.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6.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내 외모를 평가할 것 같다.
7. 지금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8.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들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어떻게 볼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9. 내가 지금 옷을 고른다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¹
10.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또는 장신구)을 그들이 예쁘게 또는 멋있게 생각할지 의식될 것이다. ³
11.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할 것이다.
12. 내가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³
13. 내가 지금 남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할 것이다.
14.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내면보다는 외모로 평가될 것이다.
15. 내가 지금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³
내면화
1. 내가 지금 몸(몸매)이 좋은 연예인이 나오는 뮤직 비디오를 본다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날씬해지길 바랄 것 같다. ²
2. 나는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동의한다.
3.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쁘거나 멋있다고 하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기준을 나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4.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수용한다.
5.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것이다.

6. 내가 지금 나를 꾸민다면, 나는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맞춰 나를 꾸밀 것이다.
7. 내가 지금 패션잡지를 본다면, 나는 잡지에 나오는 모델처럼 보이고 싶을 것 같다.²
8. 나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쁘거나 멋있다고 하는지의 기준을 나의 외모에 대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9.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는 그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
10.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내가 나의 외모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11. 내가 지금 몸(몸매)이 좋은 사람의 사진들을 본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바랄 것 같다.²
12. 내가 지금 옷이나 장신구를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하는 물건들을 살 것이다.³
13.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변한다면 나는 그 변화에 맞춰갈 것이다.
14.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말의 내용은 나의 외모를 정확히 반영할 거라고 생각한다.

외모 지향성

1. 나는 내가 예쁘거나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내가 돋보이기 위해선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신체상태(느낌)보다 내 외모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¹
4. 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준수한 외모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5. 지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외모의 측면을 매우 신경 쓸 것 같다.
6. 나는 지금 나에게 있어 외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7.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다른 면(성격이나 가치관 등)보다도 나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8. 나는 지금 괜찮은 외모를 가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10. 지금 나에게 있어 나의 외모가 중요하게 느껴진다.
11.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²
12.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 내 외모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6. 나는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이 나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17. 내가 지금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내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내 몸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¹

신체 감지

1.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지 신경이 쓰인다.¹
2.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타인의 기준으로 내 외모를 평가할 것이다.
3.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남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준으로 내 외모를 평가할 것이다.
4. 지금 누군가가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외모 기준과 나의 외모가 부합하는지 생각할 것이다.
5. 내가 지금 패션잡지를 본다면, 나는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할 것 같다.²
6. 나는 지금 내 걸모습에 신경이 쓰인다.¹
7.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부합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8.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인다.
9.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걸모습을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과 비교할 것 같다.
10.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외모가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할 것 같다.
11. 내가 지금 내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눈으로 내 외모를 평가할 것 같다.
12. 나는 지금 남들의 시선으로 나의 외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13. 내가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을 지금 보게 된다면, 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그 연예인과 비교할 것 같다.
14. 나는 지금 내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의식하고 있다.
15.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같다.

주. ¹은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의 문항, ²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문항, ³은 신체평가소재 척도의 문항을 변형한 것이다.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

McKinley와 Hyde(1996)의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를 김완석 등(2007)이 한국에 맞게 번안, 타당화한 척도다. 신체 감시성과 신체 수치심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6점 Likert 척도로(1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6점: '매우 동의한다') 응답했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요인들의 수렴 타당도를 얻기 위하여 '신체 감시성' 요인을 사용하였다. 김완석 등(2007)의 연구에서 신체 감시성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문항의 개수는 여덟 개로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지 자주 신경쓴다." 등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감시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한다. 신체 수치심은 예측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총 아홉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에서 신체 수치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뚱뚱은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겉모습(외모)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등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한국에 맞게 번안한 척도이다. 내면화와 인식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1점: '전혀 아니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와 인식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내면화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 인식은 .52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79, .31이었다. 내면화 문항은 여덟 개로 "나는 흔히 여성 잡지(코스모폴리탄, 보그 등등)를 보고 내 외모를 모델들과 비교한다.", "날씬한 여자들의 사진들은 내가 날씬했으면 하고 바라게 만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식은 총 네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의 예는 "사람들은 당신이 날씬해질수록, 옷맵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등이다.

SOQ

Noll과 Fredrickson(1998)이 개발한 것을 Fredrickson 등(1998)이 수정하고, Calogero와 Jost(2011)가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 변형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모와 관련된 다섯 개 특성과 외모와 관련 없는 다섯 개 특성, 총 열 개에 대하여 지금 현재 자기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외모와 관련된 신체적 특성 다섯 개의 순위의 합에서 외모와 관련없는 신체적 기능 다섯 개의 순위의 합을 빼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성적 대상화한 상태임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열 가지 특성들을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선 심리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이 영어단어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그 후 3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통한 한 명의 영어강사와 미국에서 9년 이상 거주했으며 언론정보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한 명, 총 두 명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특성은 “몸무게(weight)”, “성적 매력(sex appeal)”, “신체적 매력(physical attractiveness)”, “단단하고 모양잡힌 근육(firm/sculpted muscles)”, “치수(measurement)”이다. 신체적 기능에 대한 특성은 “신체 조정 능력(physical coordination)”, “건강(health)”, “힘(strength)”, “에너지 수준(energy level)”, “체력 수준(physical fitness level)”이다. 척도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자기의식 척도

Fenigstein 등(1975)의 척도를 토대로 이주일(198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자기의식 척도이다.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 사회 불안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7점 Likert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6점: ‘매우 그렇다’) 응답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를 얻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공적 자기의식 문항 일곱 개와 변별 타당도를 얻기 위해 자신의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적 자기의식 문항 일곱 개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적 및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 공적 자기의식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신경을 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등이다. 이주일(1988)의 연구에서 사적 자기의식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항상 나의 동기를 검토한다.”, “나는 대체로 나의 내적 느낌에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다.

신체평가소재 척도

김완석과 차주화(2006)가 개발한 것으로 4점 Likert 척도에 평정한다(1점: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4점: ‘매우 그렇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화장(또는 치장)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한다.”, “내가 건강을 위해 운동/다이어트 등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등이며 총 여덟 문항이다(Cronbach’s $\alpha = .77$).

MBSRQ

Cash(1990)가 개발한 MBSRQ를 강소영(2003)이 번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BSRQ

의 외모의 지향성 문항만 물어보았다. 외모의 지향성 문항은 열두 개이나 본 연구에서는 실수로 한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나는 거의 몸치장을 하지 않는다.”) 총 열한 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참가자들은 5점 Likert 척도로(1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에서부터 6점: ‘완전히 동의함’) 각 문항을 평가했다. 강소영(2003)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출하기 전,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 항상 신경이 쓰인다.”, “나는 시간나는대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점검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

김완석(2007)이 개발한 것으로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체기능 존중감을 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Likert 척도로(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4점: ‘매우 동의한다’) 평가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와 체중,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완석(2007)의 연구에서 외모 존중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 체중 존중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2, 체기능 존중감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 .74, .84였다. 외모 존중감의 문항의 수는 여섯 개이고 예로는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등이다. 체중 존중감은 “나는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하다.”,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총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기능 존중감은 아홉 개의 문항으로 “나는 남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내 몸은 보통사람만큼은 건강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Hart 등(1989)이 개발한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를 최윤선(2008)이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이다. 열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 각 질문에 대해 평정한다. 최윤선(2008)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2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이 자신의 몸매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몸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수줍음을 타고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이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패널 사이트를 통해 연구에 참가했다. 우선 참가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정

보(성별, 나이)를 기입했다. 그 후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와 SOQ, 신체평가소재 척도, MBSRQ의 외모의 지향성 문항들,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 자기의식 척도의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 문항들,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에 응답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는 여성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답하였다.

2. 연구 결과

400명의 자료에서 무작위로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을 선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 사용했다.

(1) 탐색적 요인분석

SPSS 21.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00명(여성 100명)의 자료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순목(2000)에 따르면 요인분석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표본의 수는 최소 200개다. 61개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04~.86, 첨도는 절대값 기준 .01~1.34으로 각 문항이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은 3 이하, 첨도의 절대값은 10 이하가 적절하다고 본다(Kline, 2011). 또한 각 문항과 전체 총점간의 상관이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해야 할 문항은 없었다. KMO(Kaiser-Meyer-Olkin) = .96으로 .60 이상의 값이 나왔다. 이는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표본의 적합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abachnick & Fidell, 2001; Worthington & Whittaker, 2006에서 재인용).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 12736.96($df = 1830$), $p < .001$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간 상관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사교 회전 방법을 선택하였으며(Worthington & Whittaker, 2006) 주축요인분석 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적으로 61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평행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세 개의 요인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의 수를 세 개로 고정한 후 주축 요인 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사각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열네 개의 문항이 두 개의 요인에 동시에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다. 한 문항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부하되는 것은 그 문항이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Worthington & Whittaker, 2006) 이 문항들을 제거했다. 그 후 다시 평행분석을 실시하고 평행분석에서 나오는 요인 수를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이중 부하된 문항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총 네 번 반복한 결과 최종적으로 두 개의 요인을 가진 요인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가 총 네 개의 요인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가설 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내적 일치도 계수가 최소 .80 이상이고 참가자가 피로를 느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각 요인당 일곱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부하량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2요인의 3번 문항(“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내 외모를 평가할 것 같다.”)과 13번 문항(“지금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들은 내 걸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를 평가할 것 같다.”)이 매우 유사하여 이 중 상대적으로 부하량이 낮은 13번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1요인에는 38, 37, 44, 51, 54, 47, 33번 문항이 포함되었으며(Cronbach's $\alpha = .94$) 2요인은 3, 4, 14, 5, 39, 26, 6번 문항으로 이루어져(Cronbach's $\alpha = .88$) 총 열네 개의 문항을 가진 척도가 만들어졌다(Cronbach's $\alpha = .94$). 최종 문항의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1요인의 경우 대체로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나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으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화’로 명명하였다. 2요인의 경우 타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문항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 ‘타인 의식’으로 명명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200명(여성 10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AMOS 19.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제안된 2요인 구조모형(그림 1a)의 적합도와 대안모형인 1요인 구조모형(그림 1b)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각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Hu와 Bentler(1999)에 따르면 χ^2 값과 χ^2 의 차이 값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CFI, TLI, SRMR, RMSEA 값을 사용하였다(Browne & Cudeck, 1993). Kline(2011)에 따르면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적절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SRMR값은 일반적으로 .08 이하일 때, RMSEA값은 .06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를 가진다(Hu & Bentler, 1999).

표 3. 자기 성적 대상화 예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1요인	2요인
38.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는 그 평가를 끝이곧대로 받아들일 것 같다.*	.88	-.13
37. 나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쁘거나 멋있다고 하는지의 기준을 나의 외모에 대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88	-.005
44.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겉모습을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과 비교할 것 같다.*	.87	.04
51. 내가 지금 옷이나 장신구를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하는 물건들을 살 것이다.*	.85	-.10
54.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변한다면 나는 그 변화에 맞춰갈 것이다.*	.80	.06
47. 내가 지금 옷을 고른다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79	.06
33. 내가 지금 나를 꾸민다면, 나는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맞춰 나를 꾸밀 것이다.*	.79	.04
46.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외모가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할 것 같다.	.78	.13
48.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또는 장신구)을 그들이 예쁘게 또는 멋있게 생각할지 의식될 것이다.	.76	.11
18.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수용한다.	.74	-.08
23.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다른 면(성격이나 가치관 등)보다도 나의 외모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72	-.04
17.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쁘거나 멋있다고 하는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기준을 나의 목표로 삼을 것이다.	.72	.12
29.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남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준으로 내 외모를 평가할 것이다.	.72	.15
55. 내가 비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58	.08
11. 나는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동의한다.	.58	.04
60. 내가 지금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58	.15
56. 내가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을 지금 보게 된다면, 나는 나의 외적인 모습을 그 연예인과 비교할 것 같다.	.58	.20
25.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할 것이다.	.58	.07
27. 나는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40	.22

문항	1요인	2요인
03.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내 외모를 평가할 것 같다.*	-.26	.95
04.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5	.82
14. 내가 돋보이기 위해선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07	.81
13.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들은 내 걸모습을 쳐다보면서 나를 평가할 것 같다.	-.04	.72
05. 내가 지금 몸(몸매)이 좋은 사람의 사진들을 본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바랄 것 같다.*	.05	.70
39.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66
26.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내 걸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19	.65
06. 나는 지금 내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의식하고 있다.*	.11	.64
10. 나는 내가 예쁘거나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64
02.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남들에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03	.62
21.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나는 그들이 나의 외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생각할 것 같다.	.25	.61
07.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걸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같다.	.17	.61
28.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29	.60
45.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7	.59
36. 나는 지금 내 걸모습에 신경이 쓰인다.	.27	.59
50. 나는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7	.58
01. 내가 지금 몸(몸매)이 좋은 연예인이 나오는 뮤직 비디오를 본다면, 나는 그 사람들처럼 날씬해지길 바랄 것 같다 .	.07	.56
12. 나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지 신경이 쓰인다.	.17	.56
09.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말의 내용은 나의 외모를 정확히 반영할 거라고 생각한다.	.29	.44
eigen value	20.33	2.50
설명변량(%)	53.51	6.57

주. *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된 문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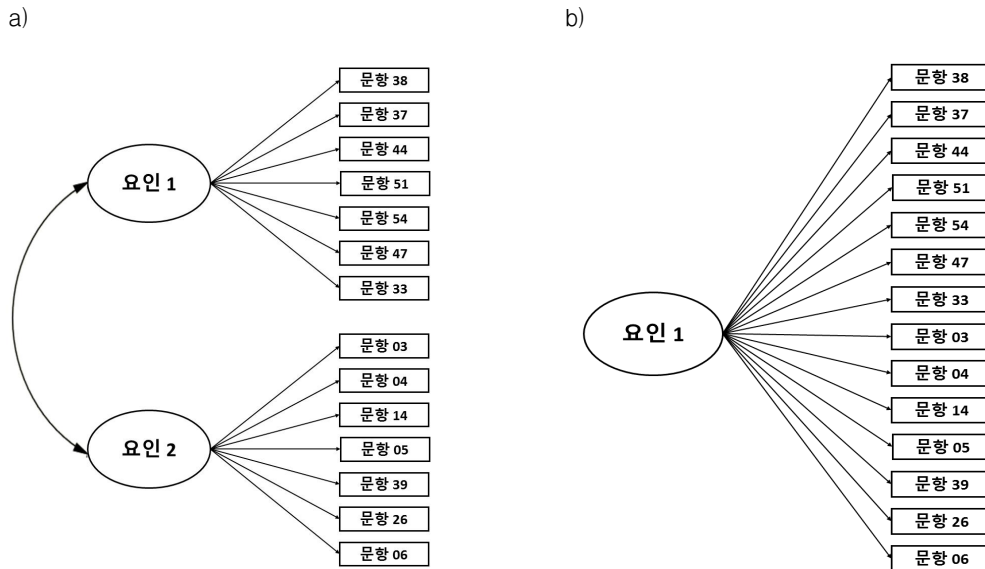


그림 1. 2요인 구조모형(a)과 1요인 구조모형(b)

전체 표본의 2요인 모형은 CFI = .97, TLI = .91, SRMR = .04, RMSEA = .06으로 모두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1요인은 RMSEA값이 적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CFI와 TLI, SRMR 값은 적절한 판단기준을 넘었지만 2요인 모형에 비해 좋은 적합도를 보이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요인 모형을 선택하였다. 여성 표본과 남성 표본의 경우 전체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으나 2요인에서 CFI 값이 .90 이상, SRMR 값이 .08 이하로 수용할만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이는 가설 1-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표 4. 2요인 구조모형과 1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Delta\chi^2/df$	CFI	TLI	SRMR	RMSEA (90% 신뢰구간)
전체	2요인	133.44	76	1.76***	.97	.91	.04	.06(.04-.08)
	1요인	231.38	77	3.00***	.91	.90	.07	.10(.09-.12)
여성	2요인	164.42	76	2.16***	.92	.84	.06	.11(.09-.13)
	1요인	227.05	77	2.95***	.87	.78	.07	.14(.12-.16)
남성	2요인	117.48	76	1.55**	.94	.87	.06	.07(.05-.10)
	1요인	158.61	77	2.06***	.89	.77	.07	.10(.08-.13)

주. *** $p < .001$, ** $p < .01$, * $p < .05$

(3) 다집단 분석

표 5. 남녀 집단간 동질성 검증

	χ^2	<i>df</i>	$\Delta\chi^2/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i>p</i>
형태 동일성	281.90	152	1.86	.93	.92	.07(.05-.08)	
요인 부하량 동일성	294.49	164	1.80	.93	.92	.06(.05-.08)	.40
공분산 동일성	296.45	167	1.80	.92	.92	.06(.05-.07)	.50

2요인을 모형으로 갖고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MOS 19.0을 이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형태 동일성 모형은 여성과 남성 두 집단에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형태 동일성 모형과 두 집단에 요인 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공분산을 동일화 제약한 공분산 동일성 모형과 형태 동일성 모형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이는 두 집단에서 요인 부하량과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구조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설 1-2).

(4) 타당도 분석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인 내면화와 타인 의식이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과 상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400명(여성 200명)이다. 그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두 요인들과 신체 감시성($r \geq .36$), 공격 자기의식($r \geq .18$), 외모의 지향성($r \geq .52$)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모든 $ps < .05$. 이는 가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가설 2-1, 2-4, 2-6). 반면 사적 자기의식의 경우 자신의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r \geq .63$, $ps < .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경우 내면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지만($r \geq .57$, $ps < .01$), 인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ps > .05$.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내면화와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의 상관계수가 타인 의식에 비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아 부분적으로 가설 2-2를 지지했다. 그리고 내면화, 타인 의식과 SOQ점수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s > .05$). 이는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가설 2-3). 신체평가소재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geq .55, ps < .01$)이 나타남으로써 가설 2-5를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모든 결과는 전체 표본과 여성, 남성 표본에서 동일했다. 종합하면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신체 감시성, 내면화,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 신체평가소재, 외모의 지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요인들이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과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과 여성, 남성 표본에서 모두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표 7).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신체 수치심, 사회적 체형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geq .25, ps < .01$). 높은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높은 신체 수치심, 사회적 체형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설 3-1, 3-3을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두 요인은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r \leq -.17, ps < .05$, 내면화와 타인 의식이 높아지면 외모와 체중 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와 관련없는 변인인 체기능 존중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ps > .05$) 가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가설 3-2).

표 6.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과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

척도	요인	성별	내면화	타인 의식
자기 성적 대상화	내면화	전체	1	.71**
		여성	1	.69**
		남성	1	.73
	타인 의식	전체	.71**	1
		여성	.69**	1
		남성	.73**	1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	신체 감시성	전체	.42**	.51**
		여성	.36**	.51**
		남성	.47**	.4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여성	.57**	.66**
	인식	여성	-.13	.08
SOQ		전체	-.03	.01
		여성	-.12	-.03
		남성	.06	.05
자기의식	공적 자기의식	전체	.29**	.43**
		여성	.18*	.41**
		남성	.37**	.45**
	사적 자기의식	전체	.63**	.67**
		여성	.68**	.68**
		남성	.68**	.65**
신체평가소재		전체	.70**	.55**
		여성	.68**	.55**
		남성	.72**	.56**
MBSRQ	외모의 지향성	전체	.59**	.66**
		여성	.52**	.67**
		남성	.65**	.65**

주. ** $p < .01$, * $p < .05$

표 7.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과 자기 성적 대상화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의 상관 계수

척도	요인	성별	내면화	타인 의식
한국판 객체화된 신체 의식 척도	신체 수치심	전체	.56**	.53**
		여성	.54**	.57**
		남성	.58**	.47**
전반적 신체 존중감	외모 존중감	전체	-.27**	-.40**
		여성	-.28**	-.49**
		남성	-.25**	-.27**
	체중 존중감	전체	-.21**	-.32**
		여성	-.24**	-.40**
		남성	-.17*	-.21**
체기능 존중감	전체	-.05	-.08	
	여성	-.08	-.13	
	남성	-.003	-.001	
사회적 체형불안		전체	.37**	.55**
		여성	.25**	.54**
		남성	.48**	.54**

주. ** $p < .01$, * $p < .05$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개발하고자 했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의 네 가지 요인구조를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내면화와 타인 의식 두 개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성적인 시선, 성적인 언급과 같이 성적 대상화가 만연한 문화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고 그 결과 신체 감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즉 내면화와 신체 감시가 구분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두 요인의 구별이 어려웠을 수 있다. 또한 Quinn 등(2011)에 따르면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는 것은 자신을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비교하는 신체 감시를 이끌고 자신이 기준과 불일치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때,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들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나 운동(Quinn & Chaudoir, 2009) 등 외모를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외모 지향성 역시 하나의 독립된 변인이 아닌 내면화, 신체 감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인 내면화와 타인 의식이 SOQ와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인식을 제외하고,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신체 감시성, 내면화)과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공적 자기의식, 신체평가소재 척도, 외모의 지향성)에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요인인 인식은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가 .31로 나왔다. 또한 한국에서 타당화된 논문에서는 내적 일치도 계수가 .52로 낮은 수준이다. 즉 인식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측정에서의 일관성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내면화와 타인 의식이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요인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수렴 타당도를 확보했다. 반면 사적 자기의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변별 타당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인 신체 수치심, 사회적 체형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낮은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예측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종합해보면, 연구 1에서 개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다. 연구 2에서는 이 척도가 실험 연구에서 조작으로 인해 변화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V. 연구 2

1. 연구 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총 90명(여성 45명)으로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모집된 대학생 62명과 광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대학생 28명이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22.13세이다.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모집된 참가자의 경우 1 연구 참가 크레딧을 받았으며 광고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10명은 10,000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³⁾.

(2) 측정도구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연구 1에서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내면화 일곱 문항과(Cronbach's $\alpha = .86$), 타인 의식 일곱 문항(Cronbach's $\alpha = .84$)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를 성적 대상화한 것을 의미한다.

조작점검

참가자들이 카카오톡을 읽으면서 자기를 성적 대상화 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작 점검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네 개의 조작점검 문항에 7점 Likert 척도로 답하였다. 이 문항들은 Saguy 등(2010)과 Chen 등(2013)이 사용한 문항을 번안한 것이다. 내용은 “카카오톡 속에서 나는, 내가 실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몸뚱아리처럼 느껴졌다.”, “카카오톡 속에서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인격이 서로 별개의 것들인 것처럼 느껴졌다.”, “카카오톡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물건처럼 보여졌다.”, “사람들이 평가한 것은 나의 몸일 뿐이지 나의 성격이 아니다.”이다(Cronbach's $\alpha = .92$).

3) 참가자 모집 시스템을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과 광고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조작점검($t = -1.04, p = .30$)과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t = 0.52, p = .61$), 타인 의식($t = 0.46, p = .65$)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집 방법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서

정서가 자기 성적 대상화에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귀하는 카카오톡을 읽으시면서 다음의 정서를 얼마나 느끼셨나요?”라는 질문이 나온 후 참가자들은 기쁨, 즐거움, 화남, 불쾌함, 슬픔, 우울함,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총 여덟 개의 문항에 7점 Likert 척도로 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유사한 정서를 하나의 변인으로 취급했다. 기쁨과 즐거움(Cronbach's $\alpha = .90$), 화남과 불쾌함(Cronbach's $\alpha = .96$), 슬픔과 우울함(Cronbach's $\alpha = .81$),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Cronbach's $\alpha = .79$)의 점수를 각각 평균하여 총 4개의 정서 변인을 구성했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가자들은 나이와 성별, 인종 그리고 참가경로(참가자 모집 시스템/광고)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실험은 심리학과 연구실에서 Inquisit 4.0을 이용했다. 참가자들은 연구실에 도착한 후 실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들어있는 연구 설명서를 읽고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 후 참가자들은 무선적으로 실험조건(자기 성적 대상화 조건)과 통제조건에 할당됐다. 자기 성적 대상화를 조작하기 위하여 Chen 등(2013)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이성(異性)에게 외모로 평가받았던 상황을 회상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적었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성의 학과 동기들이 카카오톡 방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상상하였다. 실험조건에서는 이성의 동기들이 참가자의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았다. 통제조건에서는 이성의 동기들이 참가자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읽었다. 상상과제를 끝낸 후에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속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들에 응답했다(예: “귀하는 카톡 속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귀하는 카톡 속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등). 이는 참가자가 가설을 눈치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와 조작점검 문항들, 정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응답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답하였다. 모든 응답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사후 설명서를 읽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실험을 종료했다.

2. 연구 결과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참가자 한 명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분석에 사용된 인원은 총 89명이다. 실험집단에 할당된 참가자 수는 45명(여성 22명), 통제집단의 참가자 수는 44명(여성 22명)이다. 참가자들이 각 변인의 문항들에 응답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8에 제시되었다.

조작점검

몸매로 평가당하는 것이 자기 성적 대상화를 유발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한 2(조건: 실험/통제) * 2(성별: 여성/남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건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통제조건에 비해 실험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작점검의 점수가 높았다, $F(1, 85) = 124.88, p < .001, \eta^2 = .60$.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작점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고했다, $F(1, 85) = 8.72, p = .004, \eta^2 = .09$. 조건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85) = 1.61, p = .21, \eta^2 = .02$. 이는 동기들이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는 것을 본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이 비해 자기를 더 성적 대상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 성적 대상화를 불러일으키는 조작은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성적 대상화

자기 성적 대상화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의 평균 비교를 위해 2(조건: 실험/통제) * 2(성별: 여성/남성)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예상과 달리 조건과 성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건과 성별의 상호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모든, $F_s \leq 1.14, p_s \geq .29$).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인 내면화와 타인 의식 점수에서도 성별과 조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모든 $p_s \geq .26$). 다음으로 조건(1 = 실험조건, -1 = 통제조건)이 자기 성적 대상화의 전체 점수, 내면화, 타인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가 조절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정서의 조절효과는 모든 변인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beta|s \leq .002, p_s > .05$.

표 8.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변인	조건	전체	여성	남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 성적 대상화 총점	실험	4.66(0.88)	4.56(1.02)	4.75(0.72)
	통제	4.43(1.07)	4.41(1.21)	4.45(0.95)
	전체	4.55(0.98)	4.48(1.11)	4.61(0.84)
자기 성적 대상화 내면화	실험	4.38(1.02)	4.24(1.24)	4.52(0.78)
	통제	4.10(1.26)	4.10(1.38)	4.10(1.15)
	전체	4.31(0.99)	4.17(1.30)	4.31(0.99)
자기 성적 대상화 타인 의식	실험	4.93(1.05)	4.87(1.10)	4.99(1.02)
	통제	4.77(1.03)	4.71(1.14)	4.82(0.94)
	전체	4.85(1.04)	4.79(1.11)	4.91(0.98)
조작점검	실험	5.23(1.40)	5.80(1.25)	4.68(1.35)
	통제	2.30(1.18)	2.52(1.41)	2.08(0.87)
	전체	3.78(1.96)	4.16(2.12)	3.41(1.74)
기쁨/즐거움	실험	2.16(1.43)	1.39(1.01)	2.89(1.41)
	통제	3.55(1.63)	3.04(1.70)	4.05(1.41)
	전체	2.84(1.68)	2.22(1.62)	3.46(1.51)
화남/불쾌함	실험	5.70(1.38)	6.61(0.55)	4.82(1.38)
	통제	2.19(1.44)	2.50(1.77)	1.89(0.95)
	전체	3.97(2.25)	4.56(2.45)	3.39(1.89)
슬픔/우울	실험	3.02(1.47)	3.68(1.39)	2.39(1.28)
	통제	1.72(1.07)	2.00(1.30)	1.43(0.70)
	전체	2.38(1.44)	2.84(1.58)	1.92(1.13)
수치/부끄러움	실험	5.01(1.32)	5.25(1.18)	4.78(1.42)
	통제	2.01(1.34)	2.45(1.65)	1.57(0.74)
	전체	3.53(2.00)	3.85(2.00)	3.21(1.98)

3. 논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실험 연구에서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몸매로 평가 당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본 조건은(실험조건) 그렇지 않은 조건(통제조건)에 비해 조작점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즉 실험조건의 참가자들은 자기를 스스로 성적 대상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점수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조작으로 인해 변화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째는 문항의 내용이 다소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내가 지금 옷이나 장신구를 산다면” 등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상상해서 응답해야 한다. 즉 참가자들은 문항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닌 인지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문항에 응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다. 또한 문항의 문장이 간결하기보다는 길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실험조건의 참가자들이 저항감을 느껴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타인이나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타인에게 외적으로 잘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들이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는 것을 본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때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을 느끼거나 혹은 이성에게 외모로 평가받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게 될 경우 여기서 오는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고자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VI. 종합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네 가지 요인을 반영하고, 실험 연구에서 조작으로 인해 변화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를 요인으로 갖는 척도를 제작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는 내면화와 타인 의식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네 개의 요인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 1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더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1-2를 부분적으로 지지했다. 또한 이 척도를 여성과 남성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요인 구조모형에서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두 집단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3).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이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요인들,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한국에서 자기 성적 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의 신체 감시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가설 2-2 역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내면화와 타인 의식 두 요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의 내면화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인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조작의 영향이 없을 때에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특질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신체적 외모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SOQ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가설 2-3). 그리고 두 요인은 공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사적 자기의식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가설 2-4).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측정하는 신체평가소재 척도와 MBSRQ의 외모의 지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설 2-5와 2-6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변인들이 일부 존재했지만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변인들과 본 척도의 요인들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수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반면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 없는 변인인 사적 자기의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변별 타당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자기 성적 대상화의 내면화, 타인 의식이 자기 성적 대상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인 신체 수치심,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 사회적 체형불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내면화와 타인 의식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신체 수치심, 사회적 체형불안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외모 존중감, 체중 존중감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체기능 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 척도의 예측 타당도를 확보했다(가설 3).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실험에서 조작으로 인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의 점수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4를 지지하지 못했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실험에서 조작으로 인해 변화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계점 및 추후연구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가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하지 못했던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점화하기 위해 Chen 등(2013)이 사용한 조작방법을 변형하여 카카오톡에서 이성의 동기들이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는 만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자기 성적 대상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통제조건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선 더 강력한 조작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Fredrickson et al., 1998; Hebl et al., 2004), 이성과 비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카메라로 자신의 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Saguy et al., 2010). 국내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조작방법을 사용한다면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강한 조작의 효과로 인해 참가자들이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모와 관련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예: 부정 정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미리 파악하고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거나 조절효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항의 내용이 특정 상황을 가정한 후에 그 상황에서의 생각을 물어본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이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이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 성적 대상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반영하는 척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함의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내면화와 신체 감시만을 주요한 변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외모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내면화나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몸을 감시하는 신체 감시는 제 3자의 대상화된 시선이나 코멘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그러므로 자신이 타인에게 외모로 평가받을 것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는 타인 의식은 자기 성적 대상화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힌 자기 성적 대상화의 이론을 종합하여 자기 성적 대상화가 타인 의식, 내면화, 외모 지향성, 신체 감시로 이루어진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개념을 반영하고 조작에 의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내면화와 타인 의식 두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요인 구조가 발견되었다. 본 척도의 두 요인은 특질을 측정하는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들, 그리고 자기 성적 대상화와 관련된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수렴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비록 실험 연구에서 조작에 의해 변화된 자기 성적 대상화의 상태를 측정하지는 못하였으나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서 기질적인 자기 성적 대상화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만큼, 이 척도는 특질을 측정하는 상관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소영 (2003). 외모 콤플렉스와 신체상.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 전공 여대상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시연, 서영석 (2011).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37-1160.
- 김시연, 서영석 (2012). 또래 대상화경험이 남성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및 근육질 추구에 미치는 영향: 외모지향성 및 신체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29-948.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231-253.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외식 척도(K-OBE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7(3), 455-485.
- 백근영, 서영석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 내면화와 신체감시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55-571.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주일 (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신체감시, 신체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최윤선 (2008). 사회적 체형불안 척도의 문항반응 편과성 검토.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0(3), 91-106.
- 한겨레 (2016. 02. 15). 20년전이나 지금이나...꿈쩍않는 '외모 지상주의'. 9면.
- Bartky, S.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NY: Routledge.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Sage.
- Calogero, R. M. (2004).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The effect of the male gaze on appearance concerns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1), 16-21. doi: 10.1111/j.1471-6402.2004.00118.x
- Calogero, R. M. (2013). Objects don't object: Evidence that self-objectification disrupts women's social activism. *Psychological Science, 24*(3), 312-318. doi: 10.1177/0956797612452574
- Calogero, R. M., & Jost, J. T. (2011). Self-subjugation among women: Exposure to sexist ideology, self-objectification, and the protective function of the need to avoid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2), 211-228. doi: 10.1037/a0021864
- Calogero, R. M., Tantleff-Dunn, S. E., & Thompson, J. K. (2011). Performance and flow: A review and integration of self-objectification research. In Calogero, R. M., Tantleff-Dunn, S. E., & Thompson, J. K. (Eds.),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actions* (pp. 119-1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logero, R. M., & Thompson, J. K. (2009).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objectification of women's bodies for women's sexual satisfaction. *Body Image, 6*(2), 145-148. doi:10.1016/j.bodyim.2009.01.001
- Cash, T. F. (1990).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 Questionnaire. In Thompson, J. K. (Ed). *Body image disturbance: Assessment and treatment*. Pergamon Press.
- Chen, Z., Teng, F., & Zhang, H. (2013). Sinful flesh: Sexual objectification threatens women's moral self.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6), 1042-1048. doi: 10.1016/j.jesp.2013.07.008
- Costanzo, P. R. (1992). External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daptive individuation and social connection. In D. N. Ruble, P. R. Costanzo, & M. E. Olivieri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mental health* (pp. 55-80).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doi: 10.1037/h0076760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doi: 10.1111/j.1471-6402.1997.tb00108.x

- Fredrickson, B. L., Roberts, T. A., Noll, S. M., Quinn, D. M., &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69–284. doi: 10.1037/0022-3514.75.1.269
- Gervais, S. J., Bernard, P., Klein, O., & Allen, J. (2013). Toward a unified theory of objectification and dehumanization. In Gervais, S. J (Ed.), *Objectification and (De)humanization* (pp. 1–23). New York, NY: Springer.
- Gray, K., Knobe, J., Sheskin, M., Bloom, P., & Barrett, L. F. (2011). More than a body: Mind perception and the nature of objec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6), 1207–1220. doi: 10.1037/a0025883
- Hart, E. A., Leary, M. R., & Rejeski, W. J. (1989). The measurement of social physique anxiet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1), 94–104. doi: 10.1123/jsep.11.1.94
- Hebl, M. R., King, E. B., & Lin, J. (2004). The swimsuit becomes us all: Ethnicity, gender, and vulnerability to self-objec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322–1331. doi: 10.1177/0146167204264052
- Heflick, N., Goldenberg, J. L., Cooper, D. P., & Puvia E. (2011). From women to object: Appearance focus, target gender, and perceptions of warmth, morality and compet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3), 572–581. doi:10.1016/j.jesp.2010.12.020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doi: 10.1002/1098-108X(199501)17:1<81::AID-EAT2260170111>3.0.CO;2-Y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doi: 10.1080/10705519909540118
- Inquisit 4.0.8.0. (2014). [Computer software]. Seattle, WA: Millisecond Software LLC.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dford Press.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 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doi: 10.1111/j.1471-6402.2007.00351.x
- Kuhn, M. H., & McPartland, T. S. (195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 self-attitu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1), 68-76.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doi: 10.1111/j.1471-6402.1996.tb00467.x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 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doi: 10.1111/j.1471-6402.1998.tb00181.x
- Quinn, D. M., & Chaudoir, S. R. (2009). Living with a concealable stigmatized identity: The impact of anticipated stigma, centrality, salience, and cultural stigma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4), 634-651. doi: 10.1037/a0015815
- Quinn, D. M., Chaudoir, S. R., & Kallen, R. W. (2011). Performance and flow: A review and integration of self-objectification research. In Calogero, R. M., Tantleff-Dunn, S. E., & Thompson, J. K. (Eds.), *Self-objectification in women: Causes, consequences, and counteractions* (pp. 119-1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thington, R. L., & Whittaker, T. A. (2006). Scale development research a content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for best practic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4(6), 806-838. doi: 10.1177/0011000006288127
- Saguy, T., Quinn, D. M., Dovidio, J. F., & Pratto, F. (2010). Interacting like a body objectification can lead women to narrow their presence in social Interactions. *Psychological Science*, 21(2), 178-182. doi: 10.1177/0956797609357751
- Steer, A., & Tiggemann, M. (2008).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3), 205-225. doi: 10.1521/jscp.2008.27.3.205
- Teng, F., Chen, Z., Poon, K. T., & Zhang, D. (2015). Sexual objectification pushes women away: The role of decreased likabi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77-87. doi: 10.1002/ejsp.207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elf-Objectification*

Kim, Da Som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Sang Hee*

Abstract

The goal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a scale that can measure changes in women's and men's state self-objectification by manipulation in experiments. In Study 1, we aggregated previous self-objectification research and made a pilot instrument for the Self Objectification Scale, which consisted of four subfactors: other-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appearance-orientation and body-monitoring.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self-objectification preliminary scale comprised two factor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2-factor model showed better model fit than the one-factor model. The first factor was named Internalization and factor 2 was named Other-consciousness. Both two factors showed high convergent and predictive validity, but their discriminant validity was not supported. In Study 2, we tested whether this scale can be use in experimental research. Unexpectedly,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self-objectification score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condition.

Keywords: self-objectification, sexual objectification, other-consciousness, internalization, appearance-orientation, body-monitoring

* 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in February 2017.

부 록

<부록 1> SOQ(Self-Objectification Questionnaire; Calogero & Jost, 2011)

- 아래의 항목들은 열 개의 서로 다른 신체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먼저 모든 특성들을 한꺼번에 고려해 보고, 어떤 특성들이 “지금 현재” 귀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중요한지 아래에 1위(가장 중요한 것)부터 10위(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숫자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귀하에게 있어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 조정 능력	위
건강	위
힘	위
몸무게	위
성적 매력	위
신체적 매력	위
체력 수준	위
치수	위
단단하고 모양잡힌 근육	위
에너지 수준	위

<부록 2> 자기 성적 대상화 척도

- 아래의 문장들을 자세히 읽으시고, 각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조금 동의하지 않는다	④ 보통	⑤ 조금 동의한다	⑥ 동의한다	⑦ 매우 동의한다
1	지금 누군가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나는 그 평가를 곧이곧대로 받아 들일 것 같다.						
2	나는 지금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예쁘거나 멋있다고 하는지의 기준을 나의 외모에 대한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3	내가 지금 나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내 걸모습을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 기준과 비교할 것 같다.						
4	내가 지금 옷이나 장신구를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예쁘다거나 멋있다고 하는 물건들을 살 것이다.						
5	사회적 이상적인 외모 기준이 변한다면 나는 그 변화에 맞춰갈 것이다.						
6	내가 지금 옷을 고른다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7	내가 지금 나를 꾸민다면, 나는 사회적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맞춰 나를 꾸밀 것이다.						
8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 사람들은 내 외모를 평가할 것 같다.						
9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내가 돋보이기 위해선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내가 지금 몸(몸매)이 좋은 사람의 사진들을 본다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를 바랄 것 같다.						
12	나는 지금 나의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3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나는 내 걸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14	나는 지금 내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지 의식하고 있다.						

감사의 말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저의 지도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문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후회 없는 대학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학생으로 공부한 2년은 저에게 자랑스럽고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의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황순택 교수님과 유성은 교수님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엄진섭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들의 도움 덕분에 좋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충북대학교에서 김혜리 교수님, 박광배 교수님, 이봉건 교수님, 이순철 교수님, 이승복 교수님, 임성문 교수님, 정우현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잊지 않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공부한 이향수, 김문걸, 안미소, 이동희, 고선화, 김희진, 임소희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료들이 있어서 즐겁게, 때로는 위로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문적 멘토 김현정 언니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 하시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현정언니를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의 연구를 후원해주신 장훈장학회에게도 감사합니다. 많은 참가자를 모아야하는 부담감이 컸었는데 장훈장학회의 후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용식, 이경희 우리 가족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합니다.